



##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홍보대사, 안야 테일러조이

예거 르쿨트르는 안야 테일러조이(Anya Taylor-Joy)를 메종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맞이하며 그녀의 그랑 메종 합류를 축하하는 상징적인 전화 통화를 담은 단편 영상, *마음의 부름(A Call of the Heart)*을 통해 안야의 데뷔를 기념합니다.

이 영상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역사적인 전화 통화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1903년 자크-데이비드 르쿨트르(Jacques-David LeCoultre)는 파리의 워치메이커 에드몽 예거(Edmond Jaeger)에게 전화하여 초박형 시계 무브먼트 제작이라는 도전을 수락할 것을 요청했고, 이로써 오래도록 이어지는 생산적인 협력이 시작되며 예거 르쿨트르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야와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폴로에 대한 그녀의 오랜 가족 역사와 워치메이킹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야가 보여주는 천상의 아름다움, 감수성, 재능과 근면에 대한 윤리는 예거 르쿨트르의 가치와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동세대 중 가장 흥미로운 인재로 인정받는 안야 테일러조이는 현대 여성의 살아 있는 상징입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존재감은 다채롭습니다. 초자연적이면서도 강렬하고,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연약하고, 순수하면서도 위험합니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던 영국-아르헨티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런던에서 자란 26세의 배우 안야는 2016년 로버트 에거(Robert Egger)의 *마녀(The Witch)*에서 놀라운 연기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역할을 맡았고, 2020년 넷플릭스 흥행작 *퀸스 갬빗(The Queen's Gambit)*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베스 하면(Beth Harmon)이라는 인물을 매력적으로 연기한 그녀는 골든 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에드가



라이트(Edgar Wright)의 *라스트 나잇 인 소호*(*Last Night in Soho*), 로버트 애거스(Robert Eggers)의 *노스맨*(*The Northman*)에서 주요 역할은 맡은 그녀는 이후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 마고 로비(Margot Robbie)와 함께 데이비드 O. 러셀(David O. Russell)의 *암스테르담*(*Amsterdam*) 뿐만 아니라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 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와 함께 마크 미로드(Mark Mylod)의 코미디 호러 *더 메뉴*(*The Menu*)에 출연했습니다. 안야는 현재 매드 맥스의 프리퀄 *퓨리오사*(*Furiosa*)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1833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드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매뉴팩처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고 그랑 메종의 정신을 이어받아 혁신을 향한 끝없는 열정과 창의성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 모든 기술이 모인 이곳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장식 공예의 대가들이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워치메이커 중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833년부터 1,3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이는 1931년 리베르소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슬림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를 갖춘 리베르소는 20세기 디자인의 클래식이 되었으며, 시대를 막론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계 중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시대를 초월한 현대성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